

기후변화 대응은 산림 무육으로

임업연구원 산림생태과장 김 종 원

본고는 임업연구원 김종원 산림생태 과장이 조선일보 '95. 3. 28, 7쪽 베를린 기후회의를 읽고 몇가지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임.

— 편집자 —

기후변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공멸하므로 현재는 타결이 어렵더라도 대응방안의 타결은 필연적이다.

우리나라의 CO_2 배출량은 70백만톤, 흡수량은 10백만톤으로서 배출량이 흡수량의 7배에 이른다. 그러므로 현재로서도 60백만톤의 CO_2 를 배출하는데 따른 국제부담금을 내야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2030년에는 배출량이 310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CO_2 발생량을 줄이든가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.

CO_2 발생을 줄이려면 모든 국민이 자원을 절약하고 CO_2 발생업체들이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
흡수량을 늘리는 길은산에 나무를 잘 키우는 길밖에 없다. 농작물에서도 CO_2 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만 다시 분해하여 CO_2 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 :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)에서는 CO_2 흡수를 인정하지 않고 산에 목재를 저장하고 있는 양만큼만 인정해주고 있다.

산에 목재 저장량은 헥타당 m^3 로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44 m^3 인데 비하여 독일은 266 m^3 , 일본은 124 m^3 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
그러나 광릉수목원의 경우 1929년에 66 m^3 에 불과하던 축적을 94년 현재 201 m^3 으로 끌어 올린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고 개소에 따라서는 600 m^3 이상되는 곳도 있으므로 우리가 노력만 하면 현재의 축적보다 5배이상끌어올릴 것으로 본다.

다만 산림내에서 작업은 힘이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농산촌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전문기능인을 양성하여 전문기능인으로서 공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거만 조성해주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것은 시간문제이다.

독일의 임업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산림을 독일산림의 200년전과 같다고 한다. 그렇지만 광릉수목원의 예와같이 노력만 하면 50년내지 60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.